

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플라워 플러튼 세리토스 롱비치 다운니 늘럭

LIFETIME WARRANTY! 최대 시설/ 최고 서비스/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오픈특가 \$7.00/LB



한국택배/ 24H 메일박스 오픈 (부에나팍 사거리)

- *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 항공-해운-물류서비스
- *전자상거래-배대지-3자물류대행-한국역직구대행-전세계택배
- *개인소화물-귀국이사-미국내 화물/이삿짐 운송-수입수출통관

T.714.735.9277 www.aciexpress.net
www.shippingtohome.com

갈갈 웃음

[미술 시간에]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그리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기 귀찮았던 구철이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도화지 전체를 까맣게 칠했다.

이를 본 선생님이 물었다. "너는 무엇을 그린 거야?" 구철이가 선생님을 올려보며 대답했다. "예, 김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도화지를 짹짹 찢으면서 말했다. "어, 그렇구나. 떡국에 넣어 먹어라."

[일거양득]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밍크코트하고 영국 여행 가운데 어느 것이 좋아?"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하려는 거죠?"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영국으로 여행 가요. 거기 밍크코트 값이 여기보다 훨씬 싸다고요."

[어느 소가메팅에서]
순돌이가 제법 고상하다는 아가씨 순자와 소개팅을 하게 됐다. 장소는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느 레스토랑.

테이블 위의 촛불과 은은한 조명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비발디의 '사계'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형

식적인 호구 조사(?)가 끝나고 취미 얘기를 하게 됐다. 순돌이가 물었다. "저, 음악 좋아하신다죠?" "예." "주로 어떤....." "클래식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때 주문했던 돈가스가 나왔다. 순돌이가 다시 물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우아하게 돈가스를 썰던 순자는 멈칫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시선을 접시 쪽으로 내리며 말했다. "돼지고기!"

[재치 만장]
체육 시간에 한 학생이 늦게 운동장에 나왔다. 선생님이 벌로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시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학생이 그냥 누워 있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소리쳤다. "야! 너 왜 가만히 누워 있는 거야?"

학생이 대답했다. "지금 내리막길인데요!"

[간 큰 거북이]
사자가 길을 지나갔다. 동물들이 인사를 하는데 거북이는 너무 낮아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화가 난 사자. "야! 등에 딱지 같은 가방 없고 다니는 애! 공부도 못 하는 게 매일 풀 썰어지고 다니냐?" 사자는 욕까지 써가며 거북이를 놀렸다.

그러자 거북이도 화가 나서 하는 말. "야! 이 미친년아! 머리나 묶고 다녀!"

[멋진 중년]

여자 스님이 대포집에 들러 곡차 한 잔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 원인은 옆에 있던 50대 남자들이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멋진 중년을 위하여!"

[젊은 남편이 좋아!]

일찍 일어난 남편이 면도를 하고 있었다. 수염을 다 깎은 남편은 거울을 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침에 수염을 깎고 나면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정말이야? 그럼 내일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면도해!!!"

[어느 구두소의 죽음]

구두쇠 남편을 여윈 부인이 있었다. 부인은 고인의 유해가 집을 떠나 장지로 향하는 순간까지 눈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중에 자선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자선냄비를 딸그락거리면서 "자선해 영생을 누릅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울음을 터뜨렸다.

모금원들의 소리를 듣고 그토록 울부짖은 영문을 나중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때까지는 그이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지 않는 걸 보니 정말 죽었구나 싶었던 말입니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